

# 단 1%의 가능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경영자의 자세

경영자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이를 불쏘시개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경영은 하나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다시 백이 될 수 있는 계산이 가능한 세계다. IMF 한파로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어둠은 다만 눈에 있을 뿐, 희망은 여전히 우리들 가슴에 있다. 다시 고개를 들자.



글 / 최 해 병

- 한국휠드머케팅연구원장
-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 경영자의 도전적 사고

경영자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이를 불쏘시개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경영은 하나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다시 백이 되는, 그야말로 오만한 계산이 가능한 세계다.

따라서 매사에 적당한 것보다 철저해야 한다.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통찰력이 생기는 법이다. 모험과 도전이 없는 경영이란 경영이 아니다. 새장의 새가 밖으로 나가면 십중팔구는 죽고 만다. 그래서 아무도 새장의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경영은 신바람 나게 해야 한다. 경영을 단지 돈벌이 수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고통이 뒤따를 뿐이다. 취미로 삼으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오르면 당연히 결과가 좋아진다.

## 경영자의 창조적 사고

회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림의 소재를 찾으려 하고, 낚시꾼은 어디를 가도 낚시터를 찾는다. 관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영과 연관성을 갖고 조직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

성장이 멈추면 퇴화가 시작된다. 열대지방의 벌은 꿀을 채집하는 기능이 없다. 이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채집 기능이 퇴화하고만 것이다. 개선과 혁신은 진보의 핵심이다. 변화가 없고 신선하지 않은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롭고 신선한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삶에 대한 용기를 준다. 따라서 변화를 촉진하는 창조성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세계 최대의 복지 국가는 스웨덴이지만, 세계 최고의 자살율도 스웨덴이 기록하고 있다. 편안하고 안락함이 할 일을 잊어버리게 하여 사람들이 성취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생의 본질은 성취와 보람에 있는 것이다.

## 경영자의 인간적 사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사명감이나 책임감과 같은 '감(感)'이다.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감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성숙한 사고가 경영자에게 필요하다. 돈으로 노동력을 살 수는 있으나 결코 충성심을 사지는 못 한다.

생선이 썩으면 머리부터 썩고,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른다. 자식과 부인과 친구, 그리고 부하 직원의 모습은 곧 나의 거울이나 다름없다. 성실은 그대로 메아리 쳐서 조직을 탄탄하게 해주며, 게으름과 나태는 그대로 메아리 쳐서 조직을 무너뜨린다. 훌륭한 인격과 인간적 센스가 고결한 성품과 조직을 품위 있게 만든다.

지도자란 희망을 파는 사람이다. 희망의 태양을 등지면 불안의 그림자가 보인다. 어떤 순간에서도 부하에게 절망을 보이면 그 조직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썩은 나무토막과 같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에 타버린 장작과 같다.

### 경영자의 미래 지향적 사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리드 하는 대응력이 필요하다. 공룡은 상처의 아픔이 뇌에 전달되기까지 15일이 걸린다는 설이 있다. 이처럼 대처 능력이 더딘 공룡은 결국, 자연 도태되고만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경영자에겐 신속성, 민감성, 섬세성, 선견, 선수, 선제의 능력이 요구된다. 훈련(Training), 감(Feeling), 듣기(Listening)란 환경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선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 행동만이 보람있는 성과를 창조한다.

### 경영자의 적극적 사고

프랑스의 유명한 생물학자 라마르크는 그의 명저 「동물철학」에서 용불용설(用不用說)을 제창했다. 그 골자는 이렇다. 생명은 기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기계는 쓰면 쓸수록 약해지고 고장이 난다. 그러나 생명 기관은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그대로 두면 무더지고 퇴화한다. 이것이 용불용설의 핵심이다.

머리는 써야 발달하고, 손은 움직여야 발달하며, 다리는 뛰어야 발달하고, 심장은 운동을 해야 발달한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과 위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내부에는 놀라운 힘이 내재되어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흘러가지 않은 물은 썩기 쉽다. 쇠도 닦지 않으면 녹이 스는 법이다. 인간의 재능도 내버려두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 천재도 무위(無爲)와 나태 속에서는 결국 둔재(鈍才)로 전락하고 만다.

훈련이 선수를 만들고 학습이 천재를 만든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재능에 30%만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70%의 놀라운 잠재능력이 사장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져야 한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

고 있는가?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 목표에 집중된 정신력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정신일도(情神一到) 하사불성(何事不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대개 사람은 그 삶의 자세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언제나 부정적인 면만을 보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생의 긍정적인 면을 보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캘리포니아 사막에는 '콘돌' 라는 새와 '별새' 가 같이 날아 다닌다고 한다. 그런데 콘돌은 썩은 시체를 찾아 다니고 별새는 향기로운 꽃을 찾아 그 속에 꿀을 따다고 한다. 무엇을 바라고 날아 다니는가에 따라서 발견되는 것이 다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나치게 어두운 면만을 보면서 문제이면에 있는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된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위기는 곧 기회라고 여기자. 부닥치는 문제를 두려워 말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똑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배의 돛을 어떻게 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는 것과 같이 사람마다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추락은 창의성을 끊임없이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의 두뇌는 브래타니커 백과 사전을 다 외우고도 40개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불과 3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작은 잘못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미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어리석음을 떨쳐 버리자. 이제 창조적 지혜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어둠은 다만 눈에 있을 뿐, 희망은 여전히 우리들 가슴에 있다. 다시 고개를 들자. **이**

